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 새벽설교를 할 때는

항상 <주일말씀 주제>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
그 다음에 <잠언>을 전해줘야 된다.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
<주제>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

* 설교자는 <잠언>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
잠언을 한 절,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야, 이것저것 제재를 안 받고 빠져나가게 된다.
2. <생명의 말씀>을 행함으로 ‘아무 조건’도 잡히지 않게 된다.
3.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도 안 지키면, 이것저것 모두 묶여서 ‘갈 길’을 못 가게 된다.
4. <기도>는 ‘농사짓는 일’과 같다. 농사를 안 지으면 ‘먹을 것’이 없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서 듣고 살 수가 없다.
5. <성경 말씀>은 모두 ‘기도’할 때 받았다. 기도하면서 ‘대화 속에 주신 말씀들’이었다.

6. 요한계시록 역시,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본 환상과 받은 말씀들이었다.
7. 모세 역시, 시내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8. 여호수아도 가나안 복지를 정복할 때,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다.
9. 모든 선지자들 역시, 기도하여 ‘그들이 외칠 말씀’을 받게 됐다.
10. <기도>하면, ‘깨닫는 것’과 ‘받는 것’이 있다. 기도하며 깨닫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11. <기도>는 ‘사고 날 위험한 부분을 고치는 시간’과 같다. 기도할 때 ‘사고 낼 것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위험’이 없어지게 해 주신다.
12. <기도 시간>은 ‘귀한 시간’이다. <기도 표적 소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한지 알라.” 하셨다.
13.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전지전능한 존재자>가 왔어도 나 여호와에게 ‘한마디 말’을 안 하면 그냥 간다. 천 번 왔어도

〈기도〉라는 ‘대화 한마디’를 안 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셨다. 〈기도라는 대화〉가 이같이 중하니, 기도해야 된다.

14. 〈기도〉는 ‘대화’로, ‘말하는 것’이다. 사람끼리도 만나서 ‘말’을 안 하면 만남이 무의미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그러하다.

15. 만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천 리’나 떨어져 있어도, 누구든지 〈기도라는 대화〉를 한다면, ‘그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된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6. 하나님의 “이같이 하라.” 하고 한마디 하신 것으로 〈월명동 자연성전〉과 〈야심작〉이 천국으로 뒤바뀌었다. 〈기도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한마디’가 그리도 중한 것이다.

17. 하나님은 “〈기도 시간〉 외에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셨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18.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라는 대화〉를 하면서 ‘응답받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있으니, 쉽게 이루어지게 행하신다. 간절한 기도의 대화다.

19. 하나님께 〈인생〉은 왜 그리 단순하냐고 모든 것을 겪고 물으며,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하나, 생각마저 단조롭고 조석으로 변

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인생>은 ‘100년’을 살기에, 그에 해당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다. <모든 물건>도 존재하는 만큼, 그 정도만 신경 써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20. <사람의 영>은 영원토록 살기에 단조롭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영적으로 살고, 겪어 보아라.

21.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시다.

22.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제 갈 길’을 간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잡고 다스리신다.